

뜻으로본 한국건축 양식의 특징과 국민성과의 관계

박 시 익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중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과 우리 국민성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축에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건축물(궁궐, 사찰, 민가등)이 옛모습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모양을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조상들의 옛 건축에서 그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이 건축의 특성은 바로 오늘날까지의 우리들의 국민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가 되며 둥근 그릇에 담긴물은 둥글게 되는데(노자도덕경) 건축은 바로 사람을 담는 용기이며 (말)따라서 한국건축은 바로 우리 조상들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의 특성은 자연 그 국민성과 관련지을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건축의 특징을 구라파나 동양의 다른나라 건축과 비교할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겠다.

- 특징 1. 지붕의 선(용마루선, 처마선)이 ?은 곡선이다.
- 2. 지붕의 비중이 벽에 비하여 과중하다.
- 3. 곡선의 중심이 건물 외부에 있다.

위의 특징의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나 그 각각의 특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와 관련된 우리들의 국민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음양오행의 관점에 입각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것은 건물의 형태에 내포된 성질을 파악코저함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추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동양 전래의 음양오행설의 이론으로 그 각기의 성질을 분석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특징 1.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이 육은 곡선이다.

가. 근거 : 한국 건축은 그 지붕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지붕의 곡선은 아래로 육은 곡선이다. 즉 용마루선에서 중앙부가 낮고 양쪽끝이 치켜져 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처마선의 곡선도 마찬가지로 중앙부가 처져 있으며 양쪽 추녀있는 부분이 높이 올라가 있다. 또한 지붕의 면자체도 육은 곡선이다. 이렇듯 육은 지붕인 것은 건물의 구조와 대소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와 지붕에서는 모두가 같이 되어 있다. 이와같이 육은 곡선을 갖은 지붕의 형태는 다른나라에서는 거의가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외국 건물의 모양은 그 지붕의 중앙부가 높고 좌우가 낮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의 특징중의 하나로 우선 지붕의 곡선이 육은 곡선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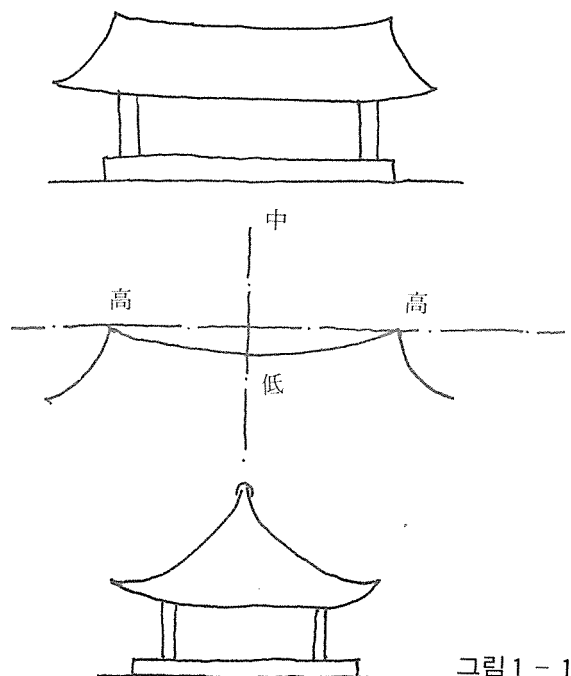


그림 1 - 1

나. 의미 : 지붕의 곡선이 육은 점에 대한 의미

지상의 대부분의 물체는(생물포함) 각기 고유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형태의 공통점은 그 모양의 중앙 되는 부분이 높게 되어 있어서 힘의 중심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물체의 중심이 높은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중심을 보호하며 중앙이 위주가 되어 한몸으로서의 효과적이고 단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과 같이 중앙이 육은 지붕은 그 내부의 힘이 중앙부에 집합하지 못하고 좌우의 높은 쪽으로 갈라져서 모이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건물이 초년부터 노년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의지가 상부에 올라가서는 중앙으로 모이지 못하고 좌우로 분리되는 뜻이다. 즉 중앙부위가 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이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일인 반면에 한국 건축은 그 지붕의 곡선이 육은 뜻으로 하여 좌우가 높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의 힘이 미약하고 좌우에 힘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뜻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 힘이 분리되는 상태로 되어서는 결국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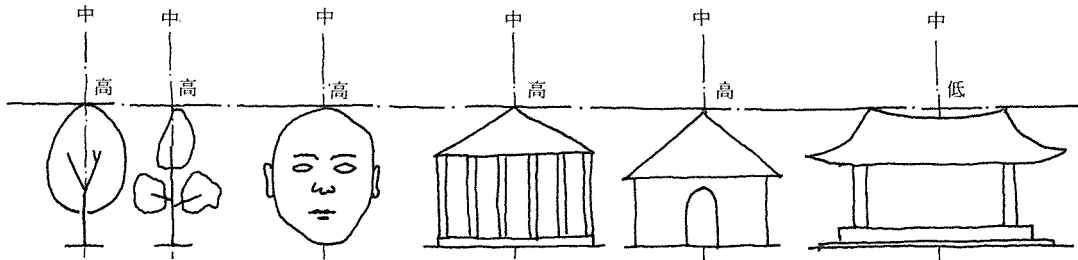


그림 1 - 2

(2) 왕권빈약과 하극상

왕은 국가구성의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복리와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토를 보존하는 막중한 의무와 또한 이에 따르는 권력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조의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스스로의 왕의 권위와 지도력을 갖지 못하고 좌우의 왕을 보필할 신하들에게 이끌리게 되어 그 신하들의 서로 싸움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였던 것을 왕권빈약의 그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중앙의 왕권이 빈약한 상태는 건축에서 그 힘이 중앙에 정점이 있지 못하고 좌우에 흩어져 있음과도 동일하다.

이와같이 좌우로 분산된 힘으로 인하여 자연히 미약한 국력을 유지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좌우의 강한 힘은 중앙의 왕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심하여서는 하극상을 일으키는 유혈극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3) 정신적 지주의 분산과 사회 정의의 혼란 사람의 각 개인별 정신적 지주는 그 사회의 도덕 혹은 종교에 그 근본을 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각 개인별 정신적인 방향

분리된 힘이 중앙의 미약함을 무시하고 좌우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는 그 경쟁이 심해져서는 파벌싸움을 일으키는 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현상이 우리 역사상으로 나타난 실례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힘의 분열과 남북 분열
2. 왕권 빈약과 하극상
3. 정신적 지주의 분산과 사회정의의 빼탈음.

다. 나타난 국민성

(1) 힘의 분열상과 조국의 남북의 분열

우리의 이조역사를 보면 당파싸움이 매우 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나라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서로 단결하여 뜻과 행동을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분당되어 상대를 포함하여 싸우기를 위주로 하여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여서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게 되었으며 자가의 당의 일시적인 명분을 위해서는 국가의 존망에 관한 일도 오히려 소홀히 할 정도로 그 분열이 극심하였다. 이와같이 당파로 쇠약해진 국가는 드디어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또 잠시의 해방동안 후에는 국토는 남북으로 분열당하는 비극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 다를때 그 개인들간에는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를 찾으려면 매우 곤란할 정도로 많다. 현행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여도 단군 신화를 비롯하여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이 대중을 이루고 그 이외에도 각 교별 분파나 그 이외의 유사종교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바로 국민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그 만큼 분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른 까닭에 각기의 올바름이 상대에게도 올바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의 정의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그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게 됨으로 올바른 정의를 혼동하게 된다. 예컨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물질지상주의가 만연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편이 되어서 기업의 목적이 사회의 공익에 대한 이바지를 망각하고 오직 이윤의 추구에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정신적 지주의 분열과 사회 정의의 혼란한 상태는 우리의 건축의 지붕의 모양에서도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즉 지붕은 벽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붕의 상부는 좌우로 그 힘이 나누어져 있다.

도덕이나 종교등은 개인의 정신세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정신이란 육체와 달리 가볍고 높은 차원에 있어서 그 위

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즉 건물에서 지붕의 부분은 사람의 정신에 해당하는데 그 상부가 분열되어 있으므로 정신이 분열된 것과 동일한 것이며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자연적인 힘이 상부에 가서는 올바르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분열되고 꾸부러짐이 바로 사회의 정의가 올바르게 맞지 못함과 동일한 상태라 하겠다.

특징 2. 지붕의 구조가 하벽(벽과 기둥)에 비하여 과중하다.

가.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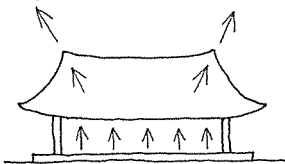


그림 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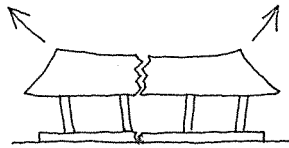


그림 1 - 4

한국 건축은 외관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붕의 면적과 무게가 이를 받치고 있는 기둥및벽에 비하여 다른나라의 구조와는 달리 월등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한국 건축의 구조가 목조 가구식이면서도 길게 뻗은 처마길이며 또 지붕위에 얹는 많은 양의 알매(흙)·흙두께·흙등이 지붕의 비중을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크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및 외관으로 보아 지붕의 구조가 하벽에 비해 그 비중이 과한 것을 한국 건축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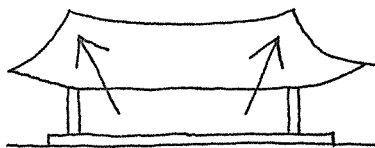


그림 1 - 5

한국 건축을 입면상으로 크게 나누어 지붕면과 벽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붕은 상부에 위치하고 벽면은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 형태의 차이에 있어서 지붕을 활기있게 날개를 펴고 있는듯이 활동적이고 벽은 단순히 정지하여 안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붕과 벽과를 음양으로 비교할 때 지붕은 그 위치로도 상부에 있으므로 양일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활동적이라 할 수 있어서 이를 양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벽체는 그 위치도 아래에 있고 또한 그 형태도 지붕에 비하여 여성적이고 단정하여 음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한국 건축의 입면을 음양으로 분류함과 같이 사회의 각 분야도 그 성질의 구별로 각기 아래표와 같이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음양의 이론으로 보아 지붕이 양이면 벽은 음이 되고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며 정신이 양이면 육체는 음이 되며 양반은 계급상 상에 있으니 양이면 중하인은 아래에 있으므로 음이 되며 문인이 가업고 높은 정신세계를 가졌기 때문에 양이면 무인은 무겁고 물체와 육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음이 되며 문화와 예술은 정신적이므로 그 뜻이 높고 밝아서 양인 반면에 경제이상공은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음에 속하여 사람의 이상은 양이고 현실은 음이 된다. 또한 산업구조로 보아 1차산업이 땅에서 생산되는 만큼 음이 되며 서비스업은 고차산업으로 양이 된다.

	위	치	모	양	의	미	음	양
지	上		활동적		天			양
붕			남성적					
벽	下		고정적		地			음
			여성적					

양	남성	정신	양	반	문인	문화예술	이상	외	고차산업
음	여성	육체	중하인	무인	경제이공	현실	내	일차산업	서비스업

이와 같이 사회의 구성을 음양으로 구별하고 이 구별된 상태와 건축과 견주어 볼 때 벽보다 지붕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의 구성등에서 음보다는 양에 비중이 큰 상태를 이룬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음양의 이론상 음과 양은 서로 그 세력이 비등하여야 서로 균형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갖게 되고 한편이 과다하게 되면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국민성

1) 남존여비사상

건물에서 지붕이 남성이며 벽은 여성이 된다. 지붕인 남성이 과도하게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쪽이 위주가 되고 여성은 종속적이 된다. 따라서 남존 여비하는 사상이 되며 우리의 과거 역사가 사실 남존여비 그대로 였다고 할 수 있어서 여성은 오직 집에서 살림만 하였고 외부에 일체 그 활동이 금지된 단편만으로도 알 수 있으며 남자는 처첩을 거느려 살았어도 여성은 결코 개가를 할 수 없었음도 그 일례라 할 수 있음도 당시의 사회가 남성위주였음을 알 수 있는 단편이다.

2) 정신 지조 정조 중시 사상

정신이 양이며 육체가 음이 될 때 한국 건축이 지붕이 벽에 비하여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아 음보다 양이 앞서고 있어서 육체보다도 정신이 위주였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높은 정신에 따라서 육체는 초개같이

버리는 풍조가 과거에 많이 있었다. 즉 지조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3) 계급차

사회구조는 양반과 중하인의 계급차가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벽과 지붕의 한계가 확실하게 나타남과 같고 지붕의 비중이 큰 양반의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을 말하며 양반의 세도가 커서 중하인은 그 시하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다.

심지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염은 안친다고 할만큼 그 계급의 차가 심하였고 양반의 중하인에 대한 핍박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현상은 건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 문관·무관

문관은 가볍고 높은 이상을 가졌음으로 그 성질이 양에 속하고 무관은 그 무게가 길고 그 대상이 전쟁과 같이 험하여 음에 속한다. 그런대 건물구조상 지붕이 양에 속하므로 문관에 해당되고 벽이 음에 속하므로 무관에 해당된다.

문관은 지붕으로 위치가 높기 있으므로 문관이 무관보다 훨씬 득세를 하게 되었으며 무관은 문관 밑에서 이들을 받들어야 했다. 따라서 무관을 항상 천대하였으며 심지어 정중부와 같이 무관의 반란까지 있을 정도였었다.

5) 문화 예술 숭상, 상공 천시하다.

문화예술은 그 성질이 밝고 높아 양에 속하며 상공은 무겁고 생계 즉 물질에 밀착되어 음에 속한다.

양이 과다한 건축구조 상태임으로 문화와 예술을 극히 숭상하였고 현실적인 생계에 직관되는 이공, 상공을 천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끼니를 굶으면서도 풍월을 읊은 자를 뜻이 높은 군자로 인정되었고 땀흘려 일하는자는 저속하게 취급되어서 학식있는 자는 결코 땀흘려 일하고자 하지 않게 되었다.

6) 이상 위주 현실 도피

이상은 높아서 양이 되며 현실은 가깝고 낮아서 음이 된다. 건축구조로 보아 지붕이 과대한 것을 현실보다는 이상에 집착이 큰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상을 위해서는 현실을 쉽게 저버렸다. 이러한 사회성은 많은 배운자들이 당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를 많이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부의 비중이 하부에 비하여 과대한 건축의 형태는 사회 구조상으로 상하가 분열되며 균형을 잃게 되어 현실적으로 보아 옹지 못함이 많음을 볼 수가 있다. 특히 그 무게의 중심이 상부에 있어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힘의 개척보다는 외부세계에 의해 피동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특징 3. 지붕곡선의 중심이 건물 외부에 있다.

가. 근거

한국 건축의 기와 지붕은 거의 모두가 옥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림 2 - 1

그림 2 - 2

용마루의 곡선이 옥어져 있고 처마의 곡선이나 합각마루 또는 처마마루등 또한 각 지붕의 면 등이 모두 옥어져 있다. 그런데 각 곡선은 그 중심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한국 지붕의 곡선이 모두 옥은 곡선이기 때문에 각 곡선의 중심은 건물 외부쪽에 있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각선의 중심이 외부에 있음으로 이러한 선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붕면도 또한 옥은 곡면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점도 외부에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모양은 대부분의 물체(생물 포함)가 그 표면의 중심점은 그 자체 내부에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볼 때 이러한 외부 중심의 건축은 한국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체가 그 중심점을 그 자체 내부에 두고 있음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 건축이 그 중심을 외부에 둔 것에 대하여서 그에 따르는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나. 의미(곡선의 중심이 외부에 있는 점에 대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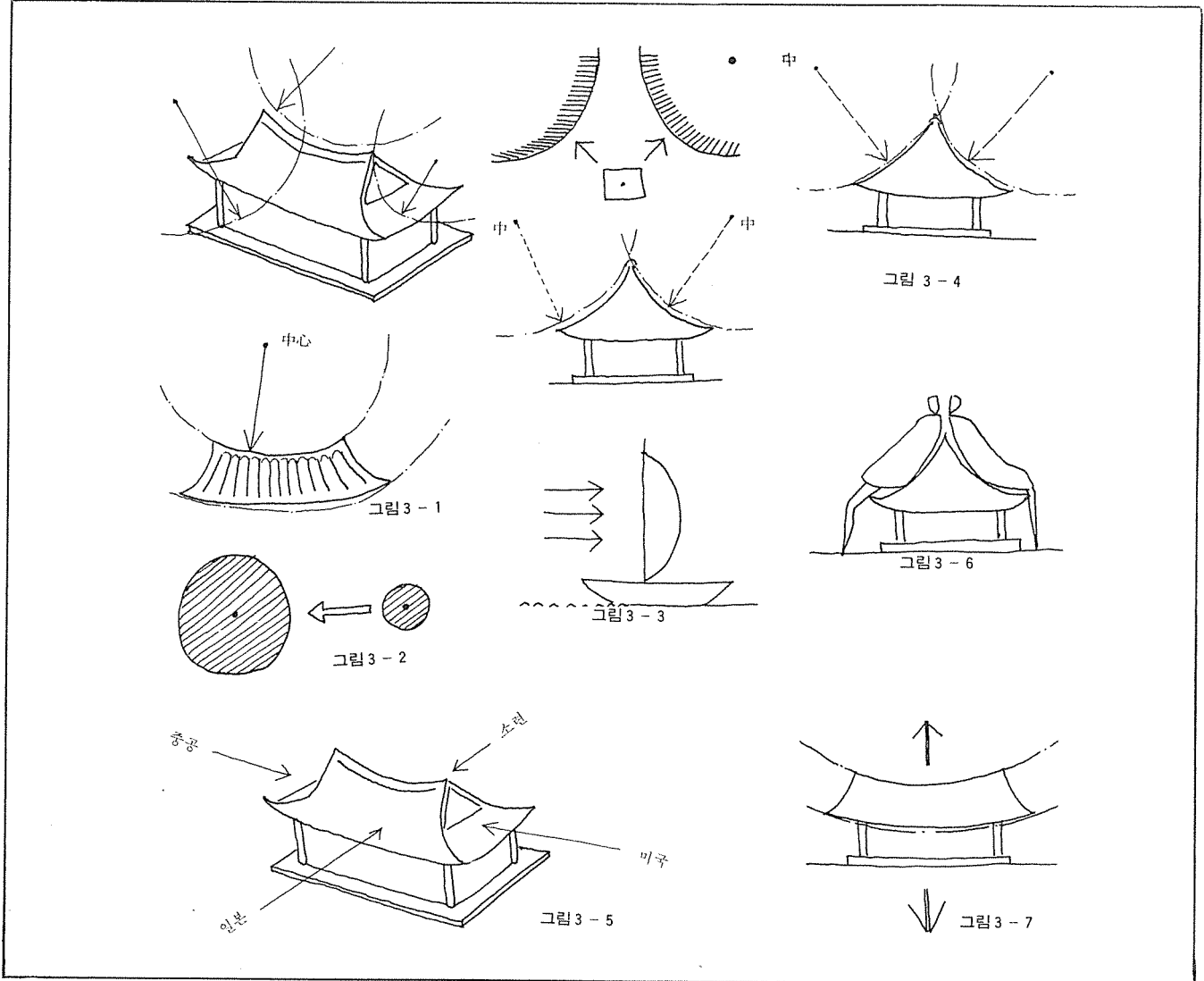
모든 물체가 자기 그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보유한 힘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력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그 보호벽은 그 힘의 중심을 위해서 감싸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호벽이 많을수록 그 힘은 많게 되고 그 보호벽이 없으면 그 힘은 쇠잔되어 소멸되고 그 물체는 자연히 외부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체의 몸도 지탱하지 못하고 해체되게 마련이다.

또한 한 물체의 옆에 그보다 훨씬 큰 물체가 있을경우 그 두 물체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여 작은 물체에는 큰 외력이 작용되어 그 영향으로 이끌려지게 되어 있다. (뉴턴의 인력의 법칙) 이때에 한 물체의 주위에 큰 물체가 있다고 함은 큰 물체는 그 자체의 중심점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 중심점은 자연히 작은 물체에서 보면 외부에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한 물체의 주위에 그 중심점을 달리는 물체가 있을 경우 그 한 물체의 기운은 큰 물체의 영향에 의하여 그 기운을 빼앗긴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의 중심점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특징은 첫째, 자기의 기운이 적어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이며 이것이 역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사대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붕이 육은 면이 마치 뿔단배의 뿔과 같은 상태가 외부의 바람을 많이 받게 되어 움직이는 형상과도 동일하다.

둘째, 지붕의 곡선의 중심점이 각기 다른것은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뜻이며 그 지붕면의 중심점이 내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외부를 향하여 있음을 그 내부 즉 자체에 대하여 배반하는 상태이며 이러한 배반하는 상태가 전후 좌우 사방에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자연히 생기는 뜻이 된다.

셋째, 지붕의 각면의 중심점이 각기 외부에 달이 있는



상태는 각기 그 중심 하늘 뜻이 다르므로 이는 서로 분리되는 상태이며 자연히 분열되어 서로 불목하는 상태의 미하며 또한 상태를 넘어 뜨리려는 뜻도 내포되고 있다.

다. (역사상에 나타나는 국민성)

1) 사대주의 사상

과거 한국의 문화가 스스로 발달된 것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을 대륙으로부터 흡수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이땅에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외부의 세력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시기에 맞는 말이며 그 스스로가 허약해 있을 경우(이조중기 이후) 외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부의 의존

도가 자연히 높아지게 되어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외국제 상품이 무조건 좋은 줄로 알고 우리 고유한 문화나 물질은 또한 무조건 멸시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렇듯이 만연된 사대주의 사상은 스스로의 조상과 그의 영토를 우습게 여기는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올바른 부모와 조상을 까닭없이 창피하게 여기며 각 개인이 그 스스로의 긍지를 잃고 외적 외부의 세력만을 옮겨 여겨 이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음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만연된 사대주의 사상은 외국은 모두 잘사는 나라로 착각하고 자기나라를 버리고 무작정 외국으로 이

민가서 그곳에서 이민족의 멸시도 모르고 오직 일시의 안일한 생각으로 그를 낳아주고 키워준 조상의 땅을 저버리는 자가 한때 많아지게 된 듯 하였었다.

또한 현재의 정세로 보아 한국의 위치가 주변 강대국가의 사이에서 독자적인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향에 민감하게 된 형편도 사대주의 사상의 다른 한 면이라 할 수 있겠다.

2) 갈등, 이단자, 배반자

지붕의 모양이 육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마치 서로 등을 대고 밀고 밀리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갈등이며 또 서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배반자가 되는 상태이다. 역사상으로도 당파싸움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며 일제 치하를 벗어나서도 남북간의 갈등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 하겠다.

3) 사회의 불목

지붕의 중심이 그 건물의 안에 있지 못하고 외부에 있음은 지붕 즉 상부의 중심이 외부에 있음이며 이는 음양으로 보아 양이 음을 배방한 뜻임으로 양과 음이 서로 불목하는 뜻이다.

양	권력기관	문인	문관	양반
음	국민	상공인	무관	중하인

이들 사회 구성의 상하 즉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단결이 안되고 불신과 불목을 하고 있음은 현시점으로 보아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우리 국미성과 건축의 모양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면 건축이 바로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과 사람은 그 그릇모양에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느면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건축의 모양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사회의 목적과 일치되어서 그곳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서 스스로가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에 오늘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치로 보아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정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뜻에 맞는 모양의 의미를 갖춘 건축을 이룬 사회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우리의 사회가 보다 더 단결되고 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중에서 그 뜻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과거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의 모양이 주위의 산의 흐름과 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훌륭하게 생각되나 엄밀하게 말하면 산의 모양도 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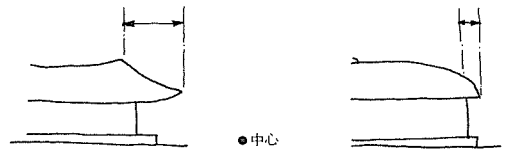
에 따라서 5종으로 구별되고 또한 산의 곡선도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산의 모양을 종수 지리에서는 금목수화토의 5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산의 곡선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오늘날까지 사용된 육은 곡선만이 우리산의 모든 곡선이라고 할 수 없음은 우리나라안에 있는 산의 종류도 위와 같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건물의 모양도 위의 산의 모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건축에 자연의 무분별한 곡선의 도입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유익한 모양을 찾아 이를 활용하여 이를 바른 모양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이 그 안에서 올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그릇 즉 건축을 만드는 일이 오늘의 건축가의 임무라 생각된다. 이러한 뜻으로 보아 우리 건축의 특징은 그 의미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여 보다 밝은 사회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앞으로의 건축이 과거 우리 민족의 약점을 보강하여 국민성으로 하여금 (1)올바른 정신 (2)단결된 사회 (3)상하가 균형을 이루며 (4)균형된 자강한 의미를 주게 할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성의 필요성을 우리의 종래의 건축의 모양에 이루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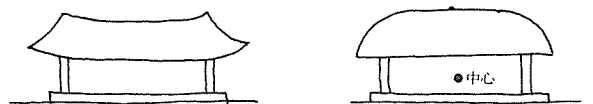
(1) 지붕의 곡선은 솟은 곡선으로 한다.



(2) 상하의 균형을 위해서 처마를 조금만 내린다.





(3) 곡선의 중심이 건물 내부에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뜻으로 건물을 그려서 종래의 건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질 비교표”

			
꼭선	형태 의미 결과	육은 꼭선이다 힘의분산 (1)국토분열 (2)붕당연속 (3)왕권비약 (4)보수적	숫은 꼭선이다 힘의단결 (1)통일기획 (2)단결제일 (3)왕권강화 (4)진취적
비중	형태 의미 결과	상부가 하부에 비해 너무 크다 (1) 남존여비 (2) 계급차	(1) 남녀평등 (2) 질서를 위한 약간의 계급의식
중심	형태 의미	중심이 내부에 있다 (1) 사대주의사상 (2) 외세영향에 크다	중심이 내부에 있다 (1) 자주적 자립사상 (2) 외부영향에 대해 강하다

이와같이 비교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건축은 되어야 겠음을 밝힌다.

“보충 설명”

- (1) 산의 모양에 대하여 그 영향에 대한다.
- (2) 외국의 건축의 모양에 대하여
- (3) 한국 건축 종류가 모양이 갖는 뜻에 대하여
- (4) 중심 이론에 대하여

- (5) 등배이론에 대하여
- (6) 한국 지붕의 평면도에 대하여
- (7) 한국 지붕의 장점과 국민의 인내성과의 관계
- (8) 한국 건축의 평면 배치에 대하여
- (9) 건물생김

(주) 완중합건축

검소한 생활로 물가고를 이기자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